

강진의 선물, 백운동 전시관 개관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백운동전시관장



200년전 다산 정약용은 사도세자 사부였던 동강 이의경이 공부하고 수양했다는 백운동 원림과 월출산을 찾았다. 일행은 날은 저물고 날씨가 추워지자 월출산행을 중단하고 백운동 원림으로 가서 하룻밤 유숙했다.

다산은 초당으로 돌아가서 백운동 원림의 풍광과 주인장의 환대를 잊지 못하고 12승경을 시로 짓고 초의선사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백운첩을 만들어 백운동 6대 동주 이덕희에게 선물 했다.

이런 진귀한 작품들이 개인의 서랍에 묻히고 훼손되고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워 강진군이 유물과 작품들을 보존하고 전시할 전시관을 건립하고 10월 22일에 문을 열었다.

호남의 3대정원이니 한국의 대표전통 정원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백운동 원림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꽃이라면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전시관은 열매요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관에는 고기며, 생선, 딱이며 과일들 산해진미가 가득하다.

전시관은 세가지 주제로 꾸며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백운동 원림을 조성하고 가꿔온 원주이씨들의 삶과 궤적, 백운동 원림의 변천사를 볼 수 있다.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다 가문이 참화를 입고 호남으로 이거하고, 다시 가문을 일으켜 의주부윤, 함경도병마절도사, 충청수사, 을묘왜변때 최초의병장등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였는데 가문과 종가를 일으키고 유지하려는 500여년의 흔적과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족보, 선대들의 문집과 친필 글씨를 모은 유목들은 물론 사주단자, 서간등 당시의 선비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도 볼 수 있다. 특별 전시물로는 집안에서 소장되어 전승

된 사초(史草)다.

사초는 조선조 정치, 경제, 사회사건들은 물론 왕실의 권력 다툼등이 기록된 극비문서로 왕조차도 볼 수 없었다. 사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왕조 실록으로 편찬되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백운동 전시관에서는 실물 사초 진본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백운동 원림을 찾았던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흔적과 그들이 남긴 작품들이다. 다산의 백운첩이 대표적이다. 백운동 원림은 명원(名園)으로 알려져 많은 명사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남긴 시문이 수백편이다. 다산, 초의, 소치등의 시서화와 추사 김정희 이광사등이 남긴 편액과 글씨도 볼 수 있다.

특히 사도세자 사부를 지낸 동강 이의경의 초상화가 눈에 띈다.

조선시대 승려화가 색민(色敏)의 작품이다. 유학자이면서 불교에 심취한 이의경의 정신세계까지 담은 조선시대 인물화의 걸작이다.

가만히 응시하다보면 죽음 너머의 사후세계, 영적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세 번째는 백운동 차(茶)문화이다.

다산 정약용은 차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차애호가였고, 초의선사는 다선(茶禪), 다성(茶聖)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차의 종장이다. 두 사람 모두 백운동원림 7대 동주 이시현과 스승제자관계로 다산차, 초의차의 산실은 백운동 원림이다. 후대 이한영에 이르러 백운옥판차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브랜드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 차문화사의 중요한 저작인 강심, 다산의 유일한 차 제조법이 백운동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조만간 다산의 차 제조법으로 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작가로서는 이때리 작가의 백운첩을 재해석한 독특한 작품과 이이남 작가의 디지털 아트 작품도 있다. 이이남은 미디어 아트의 세계적 작가로 백운동 원림의 사계(四季)를 미디어로 풀어내

관람자들에게 선보인다. 박제된 그림에 생명을 불어 넣은 ‘움직이는 명화’작품을 통해 명성을 얻은 작가의 작품으로 자칫 볼거리가 없는 그저 그런 전시관을 벗어나게 해주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발걸음 멈춰 세운다.

백운동 전시관의 전시작품들은 세계적이거나 화려하지는 않고 수수하고 고유하다. 과거의 사람과 역사를 호출하여 그 시대를 증언하고 오늘날의 사람들과 공명한다.

유럽의 세계적 명화들, 피카소나 모네, 고흐나 클림트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백운동 전시관의 전시물들은 백운동 전시관에 와야만 볼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월출산과 녹차밭, 백운동 원림과 무위사, 월남사, 이한영 생가까지 포진한 월출산 권역은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의 발코니이자 테라스다. 특정 장소를 찍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보고, 생각하고, 공부도하며 쉬어가는 여행의 장소가 될 것이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우리가 예술가들에게 진정 고마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예술가의 수만큼 다양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세상의 수많은 미술관 유물관이 있지만 강진 백운동 전시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그들과 또 다른 세계를 느끼게 해줄 것이니 그 가치와 존재이유가 충분하다.

곡식을 물에 불려 밥을 하면 그 모양과 맛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곡식에 누룩을 보태면 그 형태와 맛이 완전히 다른 술이 되고 그 가격과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예술이든 사업이든 경제든 실패와 성공, 삼류와 일류를 가르는 핵심이다.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나 국가간 차이도 이것에 실마리가 있는데 특히 강진군의 경우가 수많은 지자체중에서도 실마리를 찾고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전 국민에게 선물이 될 강진백운동전시관도 그 중 하나이다.

社 說

‘영암형’ 신재생 에너지 공유 응원한다

지방소멸 대안으로 안착 돼야

영암군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영암형 햇빛·바람 연금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안군이 뿌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라는 작은 씨앗이 한단계 성장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영암군이 추진하는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군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난개발과 자연경관의 지나친 훼손 방지, 햇빛·바람연금 등을 통한 군민 소득향상을 담고 있다. 영암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업의 집적화 등도 구체화시켰다. 특히 40㎾ 이상 발전사업의 경우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40㎾ 이하는 발전 용량별 주민참여 의무비율과 심의 과정 등을 규정했다. 영암의 현실에 맞는 배당금 산정 등의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신안군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신재생 에너지 이익공유는 자치단체의 제정을 투입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나누는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방소멸의 대안이다.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도 꾸준히 받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바꾼 것도 성과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에 따르는 이익을 주민과 사업자가 공유할 경우 개발에 따른 반대를 줄이고 주민 또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인 셈이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꿈꾸겠다는 영암군의 도전을 응원한다. 고령화 등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소멸의 위험에 처한 전남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기후위기시대에 대비하고, 지역민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모델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영암형 신재생 에너지 공유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기대되는 드론 활용 해양쓰레기 처리

실질적 감축, 성과로 이어져야

전남도가 환경문제로 떠오른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양쓰레기는 오래 전부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드론을 이용한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대책이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획기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블리지 보급·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해양쓰레기 수거와 유해생물 관리 등 해양지역 현안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4대의 드론을 구입하고 전문 운영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내륙에 국한됐던 공간정보서비스를 영해로까지 확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해수욕장과 어촌마을을 경관 개선,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으로 어장 훼손을 막고 연안 생태계를 회복시켜 궁극적으로는 어민소득 증대와 생활편의 개선도 꾀할 계획이다.

3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전남은 오랫동안 심각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금도 해안 곳곳이 바다에서 밀려온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폐기구 등에 뒤덮여 경관을 해치고 어업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양 때문에 염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양쓰레기가 해양생물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도 문제다. 바다에 방치된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으로 분해돼 어류에 들어가고 결국 이것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간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바다는 인류에게 선물이면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전남도는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처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쓰레기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전남의 해안 곳곳에 속수무책 방치돼 있는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다. 어민 등 개개인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가능한 전남의 바다를 만든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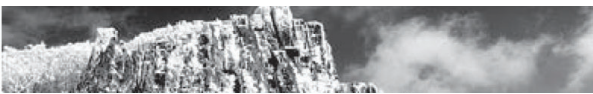
TV에 방영되지 않아 공식적인 시청률 집계 정보는 없으나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대중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높다.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3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9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조사 결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1위(5.2%)로 나타났다. 해당조사에서 대상을 OTT서비스까지 확장한 이후 처음으로 웹예능 콘텐츠가 1위를 차지했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편덱스가 발표한 9월 4주차 TV·OTT 통합 비드라마 화제성 조사에서도 흑백요리사가 2주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개된 ‘더글로리파트2’ 이후 전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와 비드라마 중 가장 높은 주간 화제성 점수를 보였다. 비드라마 화제성 출연자 부문에서는 백종원이 2주연속 1위에 올랐고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현석, 안성재 셰프도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시청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흑백요리사가 흥행을 이어가는 시기에 발맞춰 전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일원에서 제30회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열어 전남만의 특색있는 음식을 뽐냈다.



3일간의 축제에서도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오세득과 중식요리 덤섬의 여왕으로 불리는 정지선 셰프 등이 3일간 축제장에서 전남만의 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선보였다.

맛있는 전남 음식들을 두고 ‘게미지다’라는 표현이 있다. ‘게미’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 그 음식 속에 녹아있는 독특한 맛의 전남 방언이다.

현재 전라도의 게미진 전통 맛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남도는 ‘남도음식명인제도’를 운영중이다. 올해까지 지정된 명인은 단 13명으로 5차례 이상 남도음식문

화큰잔치 내 대회에 참가해야하고 수상경력이 필요하다. 요건을 갖춰 지자체 추천을 받더라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통과한 소수만이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개최되는 지정식에서 명인패를 받게된다.

일각에서는 공통된 음식요리 방법으로 조리를 해도 명인만의 비법을 흉내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만의 전통 맛을 계승하고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도 뒷받침돼야 마땅하다.

전남음식을 주제로한 축제·행사가 지속 편성돼 전남음식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취재2부 조진웅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